

전남 학교 친일잔재 수두룩...115건 확인

전남교육청 1차 조사...친일과 공덕비·교가 등 여전히 존치 광주교육청도 8월까지 조사 마치고 11월 청산작업 마무리

전남지역 학교 곳곳에 친일잔재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태스크포스(TF) 1차 조사 결과 전남지역 내 각급 학교에서 친일잔재로 보이는 대상물 115건이 확인됐다.

합평의 한 고등학교는 교내에 민족문제 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인물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었고, 여수의 한 초등학교 역시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인물의 공덕비가 교문 바로 앞에 존재하고 있었다.

또 목포의 한 중학교에는 황국신민 서사가 새겨져 있던 비석의 내용을 지운 뒤 그 위에 교훈을 새겨 넣어 교훈탑으로 재사용

한 일제시대 양식의 석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제 총흔탑과 공덕비 등을 모방한 석물(石物)이 존치되고 있는 학교가 33곳에 달했다.

친일음악가가 작곡한 교가를 부르고 있는 학교도 계정식(1교), 김동진(3교), 김성태(11교), 현제명(3교) 등 18곳이었다. 64개 학교생활 규정에는 '불량', '불온', '백지동맹', '선동', '불법집회', '동맹휴학' 등 일제식 용어와 생활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기리고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친일잔

재를 청산하기로 하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역사 전공 대학교수, 역사·음악 교원, 민족문제연구소 등 전문가 그룹으로 TF를 구성해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1차 조사를 벌였다.

도교육청은 교문 앞 공덕비처럼 학교 인근 등 교외에 존치된 친일잔재가 더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기념비나 시설 등을 비롯한 교가와 교기, 교목 등 학교상징물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를 추가로 파악한 뒤 현장점검을 거쳐 본격적인 청산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석물과 시설 등은 박물관 등으로 이관하거나 존치시켜 비극적 역사의 현장을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다크투어리즘'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친일음악가

가 작곡한 교가 교제를 원하는 학교에는 교가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광주시교육청도 1차 추경을 통해 교내 친일잔재 청산사업비 8200만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친일잔재 조사에 들어갔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이전 조사를 마치고 11월 청산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지난 12일 학교법인 만대학원 산하 광주 광덕중·고는 친일음악가가 작곡한 교가를 교체했고, 광주제일고도 교가를 바꾸기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교육현장에서 친일잔재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백귀덕 전남도교육청 장학사는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친일잔재를 청산해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추모 평전 출간·윤한덕 상 제정 추진

전남대의대 동창회 추모위 발족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동문들이 국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 고인의 공로를 기리는 추모사업을 추진한다.

20일 전남대 의과대학 동창회에 따르면 동창회는 지난 18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윤 센터장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윤한덕 추모사업위원회를 발족했다.

동창회는 최근 3개월간 동창회원 1700여 명으로부터 5억 6000여 만원

의 기금을 마련했다. 동창회는 정기총회에서 기금 중 일부인 3억 원을 윤 센터장 유족에게 전달했다. 남은 금액은 평전 출간과 '윤한덕 상' 제정 등 기념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고인의 업적과 의료발전을 위해 쏟아온 열정을 담은 평전은 내년 2월 윤 센터장 1주기를 맞아 발간될 예정이다.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윤 센터장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월 4일 근무 도중 국립중앙의료원 사무실에서 순직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무기수 김신혜 증거 부당성 호소 해남지원서 첫 공판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년 만에 재심이 진행중인 김신혜(42)씨에 대한 공판이 20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김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호법정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수집해 제출한 증거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날 공판은 한 차례 휴정을 거쳐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민주시사의 날' 차량 시위 재연 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민주시사의 날' 행사에 참여한 택시기사들이 1980년 5월 차량시위를 재연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김씨는 승진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청약신청서 등이 위조된 서류라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영화 '사일런트 폴'이 범행의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는 검찰 측 주장과 관련 증거물에 대해서도 출처 등을 따져 물었다.

김씨측과 검찰은 앞서 세 차례 진행된 준비기일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두고 비슷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는 2000년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원은 검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강압 수사라고 판단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해남=정병호 기자 jusbh@

'의붓딸 살해' 가담한 친모 검찰 송치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은 2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모(39)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만 12세인 딸을 살해

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남편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의붓딸의 시신이 만나질 만에 행인에게 발견되자 경찰에 자수해 아내 유씨가 공범이라고 진술했다. 유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하고, 친모 유 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는 데 쓰려고 구매한 그물 등 증거물도 추가로 확보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응급환자 신고한 선장 술 냄새 풀풀...응주운항 들통

응급환자 발생을 신고한 선장이 응주운항 사실이 탄로나 해경에 입건됐다.

2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15분께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남쪽 370m 해상에서 신안선적 9.77t 연안저항어선 A호 선장 S(57)씨의 응주운항 사실을 적발했다. S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01%로 어선을 운항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장과 함께 환자를 옮기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응주 측정을 했다.

선장 S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재원도 동쪽 370m 해상에서 어선 B호와 상호 계류해 B호 선장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S씨를 상대로 응주운항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해사안전법으로 입건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신호대기 중 잠든 중국인 응주운전 측정 거부 입건

광주광산경찰은 20일 응주운전을 하다 잠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인 A(3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3시 15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스포츠차량 안에서 제동장치 페달을 밟은 채 잠이 들었는데, 출동한 경찰이 열려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자신을 깨우자 제동장치를 풀고 4m 가량을 이동하다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의 응주측정 요구도 거절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동료선원 폭행·흥기 위협 목포해경, 30대 긴급체포

목포해양경찰은 "동료 선원을 폭행하고 흥기로 위협한 목포선적 19t 연안저항어선 K호 선원 A(35)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서쪽 400m 해상에서 B(40)씨와 C(48)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조업을 마치고 동료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르고 흥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사위하러 옷 벗는 옆집 여성 훔쳐 보던 50대 '딱 걸렸네'

○...옆집에 사는 여성이 옷을 벗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다가 들린 50대 경찰서행.

○...2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복도에서 불이 켜진 옆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50대 여성 B씨의 샤워장면을 훔쳐 보려 했다는 것.

○...B씨는 경찰조사에서 "씻으려고 옷을 벗는 순간 얼굴을 내민 A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으며,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옆집에 불이 켜져 있어 호기심에 쳐다본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주)해가온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